

2022년 02월 06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 가정예배순서 ♥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10편 17~18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찬 송 / 314(통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 성경봉독 / 요한일서 4장 1~12절(신약p.391)

1.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2.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4.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5.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7.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1.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 ◎ 말씀선포 /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마태복음 13장 25~29절을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

웃으며 삽시다./사랑하며 삽시다./감사하며 삽시다./축복하며 삽시다.  
우리 가정의 소원을/ 영적인 자녀와 육의 자녀의 소원을/ 경제의 소원을

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개인이 마음에도, 교회에도, 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진리에 속한 영과 거짓에 속한 영은 항상 성도들 사이에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바울도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 하며 영분별의 은사를 말씀하면서 성도는 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진정 하나님께 속한 영이 무엇인지 분별해 보라고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왜냐하면 영적 분별력은 성도들을 거짓의 영향력에서 지켜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분별하다.”는 헬라어는 “도키마제테”로서 그 원형은 “도키마조”이며, 이 뜻은 “시험하다, 검사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더욱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더욱 더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성령으로 깨달아 무엇이 진리인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바른 지식과 더불어 영을 분별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소개하는 영들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1.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 본문 1~4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했습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지를 성도들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이 속한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이단적 견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성육신 교리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단지 영적 존재로만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영은 영원하고 선한 것이지만 육은 물질적이고 악한 것에 불과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원론적 사고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하고 온전하지 못한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을 리가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에 대해 요한은 성육신을 거부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에 속한 영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성육신 교리는 구원에 필수적인 교리로,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의 가르침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고백이야말로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도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교리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지식을 아는 일에 시간과 정성을 할애해야 합니다. 바른 교리를 모르는 채 감정적 열정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언제든지 거짓 교리에 빠져 영원한 생명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건강한 교사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부지런히 배우도록 힘써야 합니다.

2. “무슨 말을 듣는가?”입니다.

- 본문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적그리스도의 자녀들을 극명하게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분 짓는 기준 중 하나는 “어떤 내용의 교리를 수용적인 태도로 듣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면서 자기 말을 듣는 자들이 예수님께 속한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속한 책임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전하는 바른 교리에 반응하며 계속 믿음이 성장합니다. 또 바른 교

웃으며 삽시다./사랑하며 삽시다./감사하며 삽시다./축복하며 삽시다.  
우리 가정의 소원을/ 영적인 자녀와 육의 자녀의 소원을/ 경제의 소원을

리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반면 세상의 정욕과 이단적 교리에 현혹된 자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임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거짓 교사들과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성향은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의 말을 환영하고 따라갑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이거나 인간적인 욕망의 성취를 부추기는 내용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사는 비결을 주제로 사람들을 가르친다면 죄인들이 받아야 할 구원에 대해 어떠한 깨달음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 영을 신중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신앙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듣고 분별하며,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예리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단지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속임수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진리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관한 바른 믿음과 고백이야말로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나누는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삼일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구름타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천군천사와 함께 구름타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에게 속한 영들을 거부하며, 진리의 영을 좇아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진리를 믿고 시인하며 그 믿음을 더욱 지키고 전해야 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58(통400)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 폐 회 / 주기도문